

## 서문교 활용방안 기본계획<sup>1)</sup>

임영균\* · 유헌준\* · 박종덕\* · 장태현\* · 홍형순\*\*

\*청주대학교 환경조경학과 · \*\*중부대학교 건설공학부

### Master plan of Seomoon Bridge Area

Im, Young-Kyun\* · Yu, Heon-Jun\* · Park, Jong-Deok\* ·  
Chang, Tai-Hyun\* · Hong, Hyoung-Soon\*\*

\*Dept. of Environmental Landscape Architecture, Chongju University

\*\*Faculty of Construction Engineering, Joongbu University

#### ABSTRACT

The Seomoon Bridge, a new planning site, is located in Sangdang-Gu Seomoon-Dong, Chongju and is the oldest bridge built during the rule of Japanese imperialism. As the name implies, Seomoon Bridge is located on the site adjacent to west gate. The Seomoon Bridge is an important bridge as an historical trace of the vanished town of Chongju.

However, as new roads and bridges are built, the Seomoon Bridge is losing its functional aspects and has become an area crowded by many street stalls. Closely located near to Sajic Fountain, the Seomoon Bridge, which has symbolically significant meaning, now faces many problems such as non-practical use of bridge, indifferent management and non-locality, which creates a negative effect on the surrounding cityscape. given this situation, in 2001, 2, Chongju city published an appeal for public subscription of a practical use plan which may design a new, landmark and establish resting spaces for the public.

The basic direction of this planning is designed to be place as the symbolic space representing Chongju, and integrated with the surrounding environmental elements such as Moosim-Cheon(stream) and Sajic Fountain, and as a recreational, resting and leisure space for the public. Especially nightscape of the bridge inspires a fresh impact on many people. Because of the widespread influence of developed cities, diverse spaces which already exist or have disappeared may be reclaimed.

By establishing appropriate use plans rather than negligence, this project will propose the improved quality of cityscape and show the possibility of public's outdoor living space, and our team will find out the meaning in these approach methods.

*Key Words : Seomoon Bridge, Cityscape, Symbolic Meanings, Outdoor Living Space*

## I. 서론

정도 600년을 넘긴 서울을 비롯한 우리 나라의 여러 도시들은 오랜 연륜을 지니고 있다. 청주시의 경우도 삼국시대에 청주읍성이 조성된 이래 도시의 발전과 확산이 진행되어 오늘에 이른다. 중요한 자연적 요소로는 도시의 배경을 이루는 우암산과 무심천이 있으며, 이를 바탕으로 조성된 인공적 요소로는 시대적 상황에 따라 그 기능과 모습이 변화해 왔다.

근대도시로부터 현대도시의 모습을 갖추어 나가는 과정에서 청주읍성이 위치했던 지역은 청주의 대표적인 중심상업업무지구(C.B.D)로 바뀌었고, 철도와 고속도로 등 광역 교통망의 확충은 도시의 위상과 규모를 급격히 변화 시켰다. 도시 내부의 도로망도 확충과 보완을 지속적으로 이루어졌으며, 도심을 관통하는 하천인 무심천에 여러 교량들이 신설되었다.

본 계획 대상지인 서문교는 청주시 상당구 서문동에 위치하며, 일제시대에는 철교로 조성된 교량이다. 한때는 청주에서 가장 큰 현대식 교량이기도 했으나 도시의 발전과 확산과정을 거치며 여러 차례의 변화가 있었다. 서문이 있었던 자리에 면하고 있다는 '서문교' (西門橋)라는 명칭에서 의미하듯 지금은 사라진 청주 읍성의 흔적을 짐작케 하는 유서 깊은 교량이다. 이에 반해 새로운 도로의 개설과 교량의 설치로 현재에는 교량으로서의 기능을 상실하여, 현재는 노점상이 밀집한 지역이 되었다. 청주의 도심부에 입지적으로나 상징적으로 중요한 의미를 갖는 교량이 활용과 관리에 문제점을 노출시키고 있으며 도시경관에도 부정적 영향을 미치고 있는 실정이다.

이러한 배경에서 2001년 2월에 청주시는 서문교와 그 주변을 청주시의 명소로 조성하고 시민들의 휴식공간으로 조성하고자 서문교 활용방안 제안 공모를 시행하기에 이르렀다.

## II. 설계여건 분석

### 1. 서문교의 연역

청주시는 읍성을 중심으로 발달해 왔는데 읍성의 동측은 우암산 서측은 무심천이 흐르는 배산임수의 형국

이다. 기록에 의하면 우암산과 면한 동문은 거의 닫혀져 있었으며 서문과 면한 무심천은 자연적인 해자의 구실을 했음을 알 수 있다. 따라서 동문과 서문은 그 기능이 미약했고 남문과 북문이 중요한 관문의 역할을 했음을 17세기에 제작된 「청주읍성도」에서도 그 모습을 찾을 수 있다.

일제강점기에는 경부선 철도가 부설됨으로 조치원이 교통의 요지로 부상되고 충청북도의 관찰부가 충주에서 청주로 이전되는 등 광역교통망의 변화에 따라 도시의 위상과 규모에 큰 변화를 가져왔다. 이 시기에 서문교는 철교로 건설되었고 조치원 방향으로 나가는 유일한 다리로, 청주시와 서측의 인접지역간의 교류에 큰 역할을 하였다. 60-70년대의 산업화 과정에서는 고속도로의 개통과 함께 도시의 현대화와 평면적 확산을 맞는 계기가 된다. 도심과 청주 IC를 잇는 도로망의 확충과 청주대교가 새롭게 건설됨으로서 서문교는 교량으로서의 기능을 상실하게 되었다. 70년대 이후에는 기능이 저하된 교량의 활용차원에서, 교량 위에 조립식 가건물들이 밀집한 형태로 주변 노점상들이 집단으로 입주하게 하였다. 이른바 '풍물시장'이라는 이름으로 폐교는 보행기능과 노점상행위가 주 기능으로 바뀌게 되었다.

현 상황에서는, 무심천 변의 하상 도로가 개통되고, 인접한 사적분수대가 새롭게 단장되는 등 주변의 환경이 개선되는데 반해 서문교의 풍물시장은 정비되지 못한 모습으로 방치되어 도시경관의 질을 저하시키는 문제가 제기되기에 이르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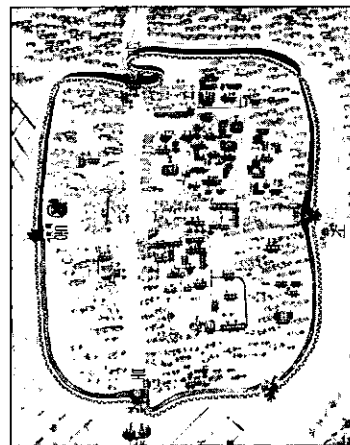


그림 1. 청주읍성도  
출처: 청주시(1994) 청주도시계획변천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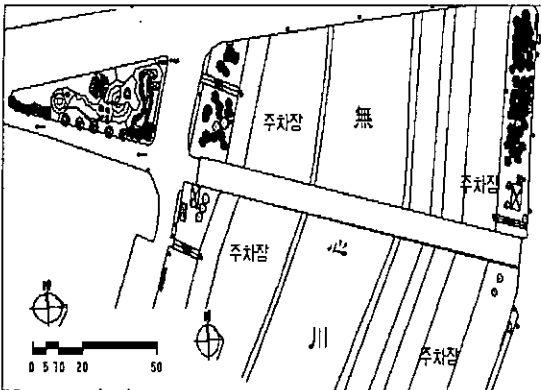


그림 4. 현황도

범례: ○: 전신주: ○: 가로등: □: 게시판: □: 신호기

### III. 기본구상

#### 1. 청주시의 요구사항

본 프로젝트에 대한 청주시의 요구사항(requirement)인 공모지침서의 내용을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 1) 일반 원칙

- 사직분수대와 연계된 청주의 상징적 장소로 부각
- 환경조형물과 조경이 조화된 시민휴식공간으로 활용
- 시민이 즐겨 찾는 아름다운 명소로 조성
- 조성 후 사후관리가 용이하며 실용적인 공간으로 활용할 수 있는 방안 모색
- 환경친화적인 공간으로 계획되어 청주시에서 역점 사업으로 추진하고 있는 아름다운 녹색도시 건설사업에 부합되도록 제안

##### 2) 활용방안 수립 방침

- 청주의 새로운 이미지를 부각시킬 수 있는 획기적인 창안 구상
- 무심천 둔치의 녹지를 서문교와 연계한 조경계획
- 교량의 해체, 대수선 등 교량의 형태를 훼손하는 계획은 자양
- 시민의 야간이용을 고려
- 하중을 고려한 각종 조경수 식재 및 편익시설 설치

#### 2. 유사사례 검토

유서 깊은 도시들의 교량은 중요한 랜드마크의 역할을 하며, 추억과 향수가 어린 장소로 기억되곤 한다. 이들 중 몇몇은 중요한 관광자원이 되기도 하며 한 도시를 상징하는 이미지로서 대표경관(common landscape)이 되기도 한다.

특히, 프랑스 세느강에 위치한 「미라보 다리」는 길이 190M에 폭 20M의 그리 크지 않은 규모나, 세계적인 명소로 자리잡고 있다. 또 미국의 작은 마을에 위치한 「메디슨 카운티의 다리」 또한 단순한 교량 이상의 큰 이미지를 지니고 있다. 이렇듯 강한 이미지를 형성하게 된 바탕에는 문화적 요소가 그 기저를 이루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전자는 실연을 노래한 아폴리네르의 시가 있



그림 5. 메디슨 카운티의 다리

출처: <http://www.my.dreamwiz.com/kckwon/madison.htm>



그림 6. 미라보 다리

출처: <http://www.parksimon.com/travel/europ/france/bridge.htm>

있으며, 후자는 이를 배경으로 한 소설과 영화가 있었음으로 세계적인 명소가 되었다.

### 3. 기본방향

- 청주시를 대표할 수 있는 상징성 강조.
- 청주의 대표하는 자연환경요소인 무심천과 인접한 사직분수대와 연계된 계획.
- 시민의 레크레이션 및 휴식 등 여가활동의 장으로 조성.
- 시민의 야간이용을 고려한 야간경관 창출.

### 4. 기본구상

- 사직분수대와는 동선을 연계시키고, 형태적으로는 사직분수대의 물방울 이미지를 교량 입구 부분에 도입하도록 함.
- 교량의 양단에는 조경식재와 데크를 설치하여 휴식과 조망공간을 조성하도록 함.
- 교량의 대수선을 피하기 위해 교량 자체가 환경조형물 기능을 갖도록 부가적 요소를 도입하도록 함. 조형물적 성격의 부가적 요소의 주제는 동과 서의 만남으로 상당구와 흥덕구의 화합을 의미하는 디자인의 형태를 띠게 함.
- 둔치에 있는 기존의 식재는 보존 활용하도록 하며 보식을 통해 불량경관을 차폐하도록 함.
- 야간의 이용과 야경을 고려하여 교각에서 상향조명과 하향조명을 도입하도록 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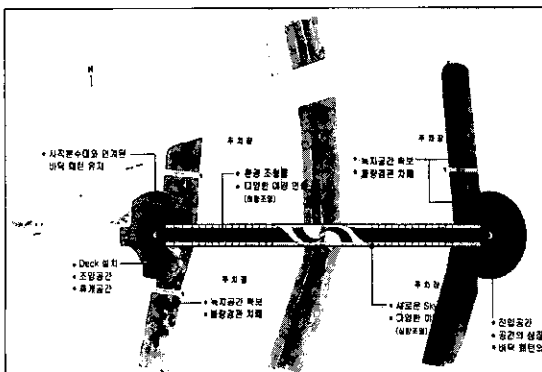


그림 7. 기본구상

## IV. 기본계획

본 계획 대상지가 매력적인 경관을 창출하여 청주시의 상징성을 제고함과 동시에 시민들에게는 쾌적한 옥외활동의 장소가 되도록 하는 것이 본 프로젝트의 목표이다. 이를 위해 기존 교량을 최대한 활용하여 주변환경과 조화로운 공간이 조성되도록 하였다.

특히, 교량의 폭이 좁으며, 교량 양단에 활용 가능한 공간이 제한적인 문제점을 지니고 있다. 이를 위해 계방의 고저차를 활용한 데크를 설치하여 전망과 휴식을 위한 공간을 확보하도록 하였다. 데크 주변에는 소나무 식재로 조성된 기존녹지와 연계된 보식으로 경관을 제고시키도록 하였다. 인접한 사직분수대는 소공원의 기능도 겸하는 중요한 경관요소이므로, 시각적 기능적으로 원활히 연계되도록 하였다.

인지성을 제고하여 상징성이 강조되도록 하기 위해, 수직적인 조형요소를 도입하였다. 교량의 바다면과 양단의 결절부는 포장패턴으로 장소성을 강조하도록 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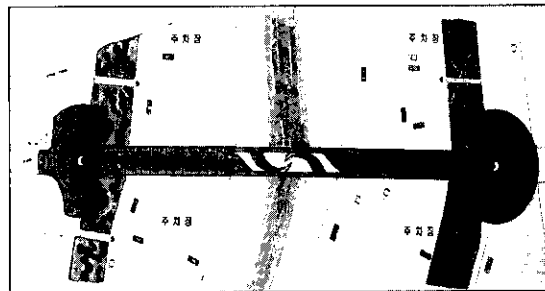


그림 8. 기본계획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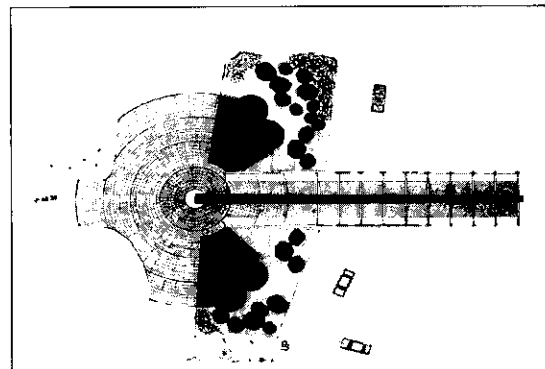


그림 9. 부분상세도

였다.

주·야간의 고밀도 이용을 고려하여 기능적인 조명과 장식적인 조명을 도입하도록 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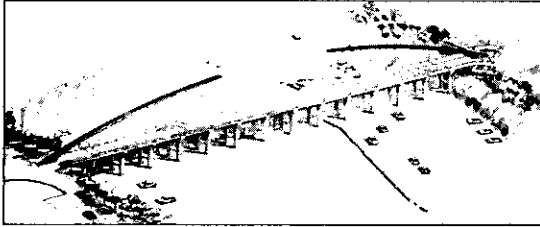


그림 10. 조감도(스케치)

## V. 결론

본 계획은 도시 중심부를 관통하는 하천인 무심천에 위치한 서문교와 주변공간에 대한 활용방안에 대한 연구이다. 도시의 교통여건 등 환경의 변화로 기능이 저하된 교량을 새로운 도시경관 요소로 탈바꿈시키려는 새로운 시도로 여타도시에서는 이러한 사례를 찾아보기 어려웠다.

서문교가 갖는 새로운 기능은 시민들의 옥외활동공간

으로 이용됨과 동시에 교량 자체가 도시내의 큰 조형요소로 랜드마크가 되도록 하였다. 아울러 도시의 랜드마크의 기능과 가로변 소공원 기능을 겸하는 인접 사직분수대와 연계시켜 무심천 변에 새로운 옥외활동공간의 중심이 되도록 하였다.

도시의 확산과 개발의 영향으로 도시 내에 이미 존재하거나, 앞으로 용도가 폐기되는 여러 공간들이 발생할 여지가 많다. 대부분의 이러한 요소들, 혹은 공간들은 한 도시의 연륜을 나타내는 역사성과 의미를 지닌 장소들이다. 「국립중앙박물관」의 경우와는 다른 차원이지만, 이러한 요소 공간들을 없애 버리는 것은 가장 쉬운 방법이 될 수 있을 것이다. 소멸시키거나 방치되기보다는 적절한 활용방안을 수립함으로써 도시경관의 질을 높이고 시민들의 옥외생활공간으로 재생될 가능성을 모색해 본 것에서 연구의 의의를 찾을 수 있었다.

- 주 1. 편집자주: 이 설계작품은 2001년 2월 청주시가 시행한 서문교 활용방안 제안공모에서 최우수상을 수상한 작품임.  
주 2. 하천길이 17km, 준용하천 0.5km, 하폭 110~370m, 둔치 폭 20~40m, 계획 강우량 304.65mm/일, 홍수량 1,530mm/일

원고접수: 2001년 6월 18일

최종원고 접수: 2001년 7월 20일

심사: 한국조경학회지 조경작품 평가기준 제 4조에 의거 심사가 면제된 작품임.